

# ‘승부가 1 위, 친선은 14 위’

강소 도시축구리그, 순수한 축구 펼치며 끝까지 분투하는 정신 겨뤄



관중들로 꽂힌 강소성 도시축구리그전 현장

“인정사정 필요없이 오로지 승리에 대한 갈망뿐.” 최근 네티즌들로부터 ‘강소성 슈퍼리그’(苏超)라고 친절하게 불리는 제 1회 강소성 도시축구리그전이 하루가 멀다하게 인터넷을 달구며 드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3년에 핫하게 떠올랐던 귀주 ‘촌 슈퍼리그’에서 지금의 ‘강소성 슈퍼리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향촌축구, 도시축구에서 소박한 열정과 즐거움, 감동을 찾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열기의 배후에는 축구경기에 대한

팬들의 추구가 있고 더우기는 이 땅에 대한 참여자들의 깊은 사랑이 배어 있다.

‘강소성 슈퍼리그’ 참가팀은 강소성 13개 구를 설치한 도시(设区市)이고 ‘촌 슈퍼리그’ 참가팀은 주로 용강현의 각 마을이다. 이들중에는 여전한 축구의 열정을 보여주는 선수, 감독, 교원이 있는가 하면 축구를 떠나 각 업계에서 일하는 전직 선수, 심지어는 순수 아마추어 선수도 있다. 교원이고 양식업 종사자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누가 봐도 능하면 누가 경기를 뵈든다.

바로 이렇게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각이한 선수들이 고향의 영예를 위해, 단체의 승리를 위해 축구장에서 순수한 경기를 펼치면서 끝까지 분투하는 정신을 겨루는 것이다.

특히 ‘강소성 슈퍼리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아마도 ‘승부가 1 위, 친선은 14 위’라는 ‘인터넷 유행어’가 아닐까 싶다. 각 팀의 선수들은 팀의 명예를 위해 몰려서 지 않고 맞서는 정신을 경기장에서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촌 슈퍼리그’가 출범된 후 연속 3회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

을의 영광과 촌민들의 기대를 담은 각 마을 팀들이 매 경기마다 단결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환호성으로 들끓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개인의 리이 아닌, 오로지 단체의 승리에만 집중했다.

‘촌 슈퍼리그’에서 ‘강소성 슈퍼리그’에 이르기까지, 두가지 현상급 축구경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관건은 바로 그것이 민심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고 경기의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고 연장할 수 있었다. 체육경기를 오직 민중의 결에서 거행하여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영광과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해야만 대중들은 진정으로 그 속에 몰입되어 축제와도 같은 환희와 귀속을 느낄 수 있다.

현재 촌민들이 모두 경기에 열중할 때, 도시 주민들이 모두 축구장에 몰려들어 고향을 위해 응원을 아끼지 않을 때 이러한 경기는 가장 깊은 ‘토양’을 갖게 되며 친숙함을 주고 인기를 끌 수 있다. 이러한 대중체육, 인민체육 또한 더욱 지속적인 생명력과 감화력을 갖게 된다.

‘공을 쫓던 데’에서 ‘축구에 대한 추구’로 향하는 이 열정은 ‘승부조작’에 대한 혐오와 ‘친선미’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단오절 기간 룡주경기를 주변의 응원대처럼 신변의 다른 경기를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듯 순수하고도 진실된 즐거움은 진심에서 우러어나오는 사랑인 것이다.

사랑이 깊어지면 열기가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 그러면 영향력도 따라서 상승한다.

/ 신화사

## 연길시, 전민건강운동 ‘6.6’ 로라스케트의 날 행사 마련



6월, 연길시체육총회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전민건강운동중심에서 주관, 연변방상운동협회와 연길시 속도스케이트협회에서 공동으로 후원한 전민건강운동 ‘6.6’ 로라스케트의 날 행사가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로라스케트장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김림성 백산시, 름강시, 장백현과 흑룡강성 가복사시 및 연변의 왕청현, 화룡시, 도문시, 룡정시, 연길시 등 여러 협회에서 온 100여명 로라스케트 애호가들이 활동에 참여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전민건강운동 ‘6.6’ 로라스케트의 날 행사는 전민건강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전민건강운동계획(2021—2025)>을 참담게 시달하여 광범한

로라스케트 애호가들을 위한 전시 플랫폼을 제공함과 아울러 로라스케트를 매개물로 상호 래왕하고 교류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연길시 로라스케트 보급과 전개를 끊임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타지방에서 온 로라스케트 애호가들이 연길이라는 관광도시의 매력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체육+관광’의 새로운 정경을 확충하고 연길시 전민건강운동 사업의 활발한 발전에 조력한다는 데 취지를 두었다.

한편 이날 활동은 남녀 10.32키로미터(12바퀴) 로라스케트 종목과 남녀 21.5키로미터(25바퀴) 로라스케트 종목을 설치했다가 하면 각 협회의 시범 종목도 마련했다. 경기장에서 날렵하게 트랙을 질주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 현장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다.

/ 김가혜기자

## 40살 호날두의 투혼...

### 쁘르뚜갈, 네이션스리그 우승



6월 8일, 포르투갈팀의 호날두가 동점골을 터뜨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신화사

포르투갈이 최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강호 에스빠냐를 물리치고 네이션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포르투갈은 9일(중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유럽 축구 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결승전에서 에스빠냐와 2대 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 3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초대 대회인 2018-2019 시즌에 이어 6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에스빠냐는 2022-2023 시즌 우승에 이어 2회 연속 결승에 올랐으나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네이션스리그는 1년 뒤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강팀들의 전력을 파악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회였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별 리그에서 각 조 1위를 차지한 포르투갈, 에스빠냐, 독일, 프랑스가 4강에 올랐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서는 에스빠냐가 프랑스에 5대 4 승, 포르투갈은 독일에 2대 0 승리를 거두며 각각 결승에 진출했다.

포르투갈은 초대 대회인 2018-2019 시즌 챔피언, 에스빠냐는 직전 대회인 2022-2023 시즌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에스빠냐는 지난해 열린 유로 2024 우승까지 더해 유럽 주요 대회에서 3번째로 도전하는 상황이었다.

결승전에서 에스빠냐가 우세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슈팅수에서 16-7로 크게 앞섰고 점유율도 62%-38%

였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득점 기회에서 강한 집중력으로 에스빠냐 수비를 무너뜨렸다.

호날두는 4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르투갈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다.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건재했다. 팀이 1대 2로 지고 있던 후반 16분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포르투갈을 살렸다. 후반 막판 호날두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팀은 흔들림이 없었다.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둔 포르투갈은 6년 만에 이 대회에서 정상에 등극했다. 통산 2회 우승으로 프랑스(1회), 에스빠냐(1회)를 따돌리고 네이션스리그 최다 우승팀의 반열에 올랐다.

포르투갈은 로장 호날두, 브루누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두 실바를 중심으로 비티냐, 콘세이션 등 젊은 피들의 급성장도 더해져 적절하게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선수진의 선수층이 매우 두텁다. 빅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다수가 벤치에 앉을 만큼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작은 점은 포르투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지난 유로 2024에서 8강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남겼으나 이번 네이션스리그에서 최강 에스빠냐를 제압하고 우승을 이끌며 지도력을 입증했다. 포르투갈은 1년 뒤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게 됐다.

/ 외신종합

## ‘극적 끝까지 탈출’ 중국팀, 바레인에 1대 0 승리로 조별 리그 마무리



6월 10일, 바레인에 1대 0 승리를 거둔 후 중국팀 선수들이 현장을 찾은 5만여명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 신화사

10일 밤, 중경룡흥경기장에서 펼쳐진 2025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에서 중국남자축구대표팀은 바레인에 1대 0 승리를 거두며 10전

3승 7패 승점 9점의 성적으로 조 5위를 기록, 그나마 조별 리그 꼴찌를 면하며 2026년 월드컵 예선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인도네시아와의 원정경기에서 패한 대표팀은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둔 채 추가경기 진출에 실패했고 앞당겨 북중미 월드컵과 작별을 고했

다. 그러다 보니 조별 리그 마지막 라운드인 바레인과의 홈경기는 대표팀의 ‘명예전’이었다.

이번 월드컵 예선전 첫 맞대결에서 대표팀은 장욱녕의 후반 90분에 터진 결승골에 힘입어 조별 리그 2연승을 이룩한 바 있다. 중국축구협회 공식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역사상 중국과 바레인은 도합 8번 맞붙었는데 중국대표팀이 4승 4무의 무패전적을 달성했고 도합 15골을 기록, 실점은 8골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이반코비치 감독은 름량명, 사문능, 세르지오, 왕옥동, 장욱녕을 동시에 선발로 출전시켰다. 그러나 대표팀은 전반전에 슈팅 4회를 냈고 유효 슈팅은 단 한번도 없었다.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도 했지만 득점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반 89분에 페널티지역에서 상대 선수의 핸드볼이 나오며 페널티킥을 얻었고 왕옥동이 키커로 나서 1대 0 승리를 완성했다.

바레인을 꺾은 후 대표팀은 10라운드 경기에서 승점 9점을 쌓았다. 더불어 순위에서 바레인을 최하위로 밀어내고 조 5위로 꼴찌를 탈출했다.

/ 길림일보

## 우즈베키스탄, 사상 첫 월드컵 본선행

우즈베키스탄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은 5일(현지시간) 아랍주장국련맹(UAE) 아부다비의 알나흐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A조 9차전에서 UAE와 0대 0으로

비겼다. 3차 예선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를 기록,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된 선두 이란(승점 20)에 이어 A조 2위(승점 18)에 이름을 올린 우즈베키스탄은 10일 카타르와의 최종 10차전 결과와 관계없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다. 그리고 우즈

베키스탄은 10일 펼쳐진 마지막 경기에서도 카타르를 상대로 3대 0 대승을 거두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6개국씩 3조로 경쟁해 각 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하고 3~4위가 4차 예선으로 간다.

이로써 마지막 경기에서의 승리로

우즈베키스탄은 3위 UAE(승점 15)와의 격차를 승점 6점으로 벌려 2위를 확정했다.

1994년 FIFA가 가입한 이후 아시아 무대에서 북명으로 자리매김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 외신